

김수영과 기계사물들

오영진

한양대 에리카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
울산과학기술대 사이언스월드 연구원

문학/철학

교과목 <기계비평>,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헬리콥터 / 김수영 (1955)

사람이란 사람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어두운 대지를 차고 이륙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우매한 나라의 어린 시인들이었다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벼웁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설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설움을 아는 사람일 것
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의 말을 잊고
남의 말을 하여왔으며
그것도 간신히 떠듬는 목소리밖에는 못해왔기 때문이다
설움이 설움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젊은 시절보다도 더 젊은 것이
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이다

1950년 7월 이후

이 나라의 비좁은 산맥 위에 자태를 보이었고
이것은 처음 탄생한 것은 물론 그 이전이지만
그래도 제트기나 카아고보다는 늦게 나왔다

그렇지만 린드버어그가 헬리콥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양의 풍자를 그의 기체 안에 느끼고야 만다
비아의 수직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의 설운 모양을

우리는 좁은 뜰안에서만 아니라

심지어는 항아리 속에서부터라도 내어다볼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처정을

헬리콥터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여 너는 설운 동물이다"

— 자유

— 비애

더 넓은 전망이 필요없는 이 무제한의 시간 우에서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
양상한 육체의 투명한 골격과 세포와 신경과 안구까지
모조리 노출 낙하시켜가면서
안개처럼 가벼웁게 날아가는 과감한 너의 의사 속에는
남을 보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보이는
금지와 선의가 있다
너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과 함께
손을 잡고 초동물세계 속에서 영위하던
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
너는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규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에 네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에
스스로 검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는 것이다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벼웁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설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설움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알베르트 뒤러,
<멜랑콜리아1>, 1514



“멜랑콜리가 서양 문명인들의 근본 정조인 데 반해, 한은 문명의 변방에서 변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주변인들의 정조다. 또한 한이 절대 다수 피지배층의 정서인 반면, 멜랑콜리는 지배층의 정서다.”

철학자 김동규 , <한(恨)과 멜랑콜리 비교 연구> (2016)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벼웁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설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설움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김수영의 시에 나타는 비애는 왜 슬픔
이 아니라 서러움인가?

있어본 자의 상실감이 아니라
애초에 없는 자의 모호한 박탈감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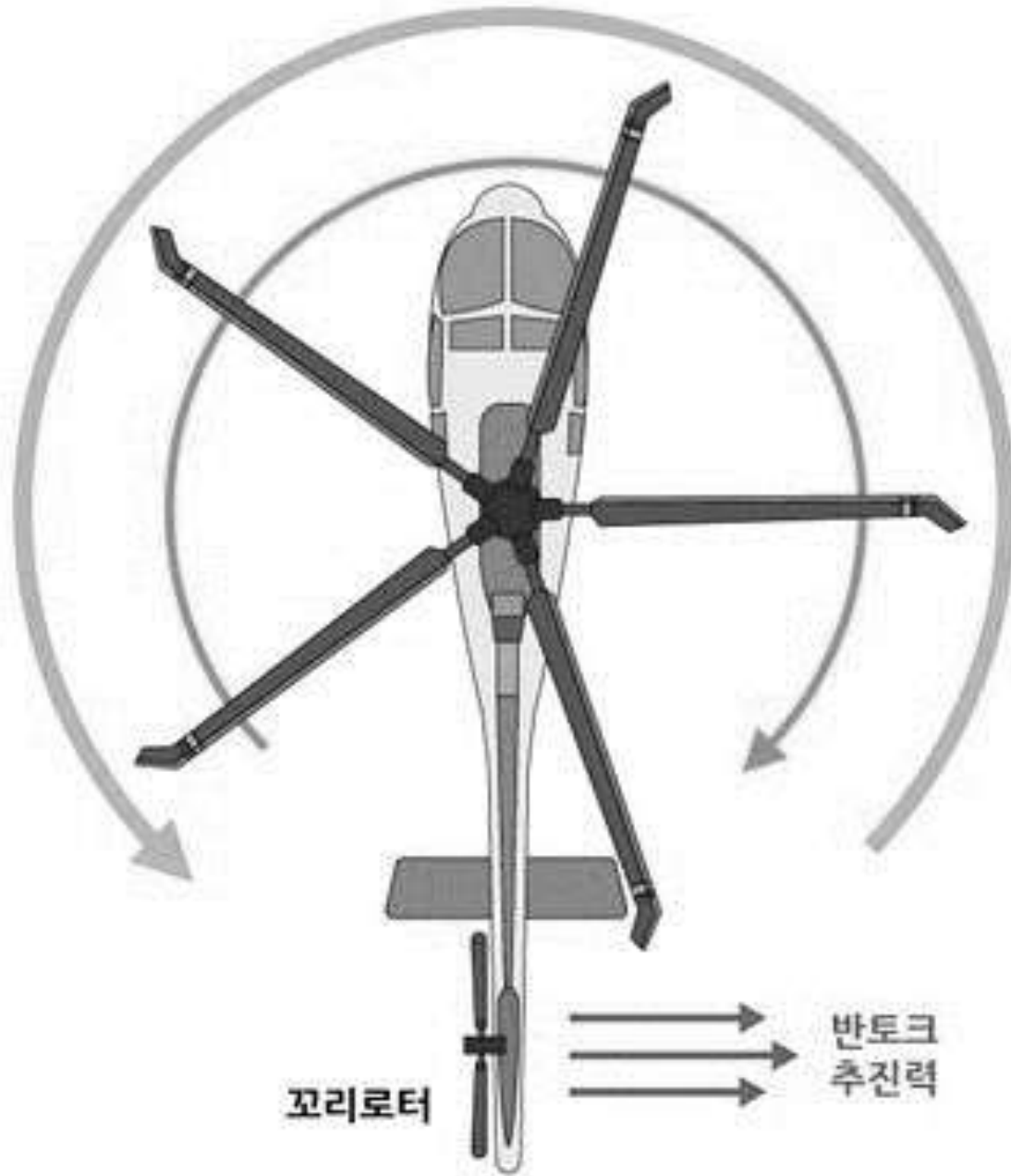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동양의 풍자를 그의 기체 안에 느끼고야 만다
비애의 수직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의 설운 모양을
우리는 좁은 뜰안에서만 아니라
심지어는 향아리 속에서부터라도 내어다볼 수 있고”

Bell-H-13-Sio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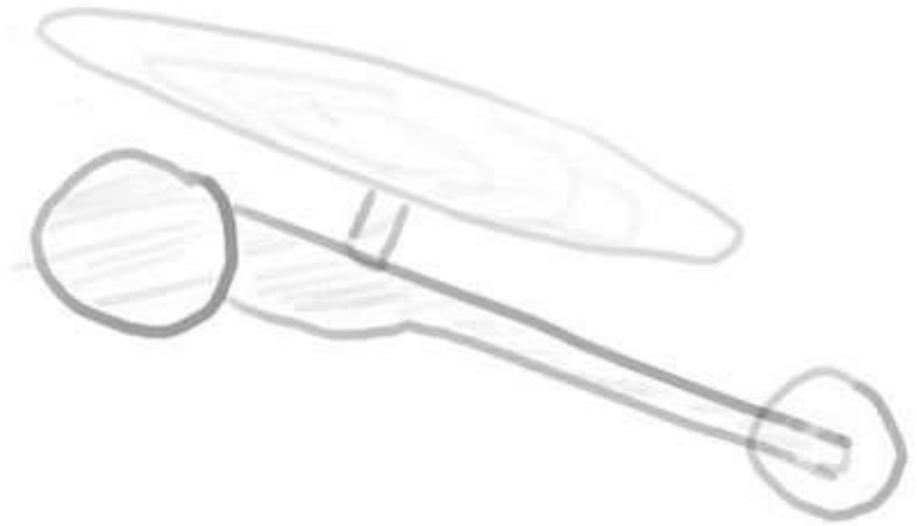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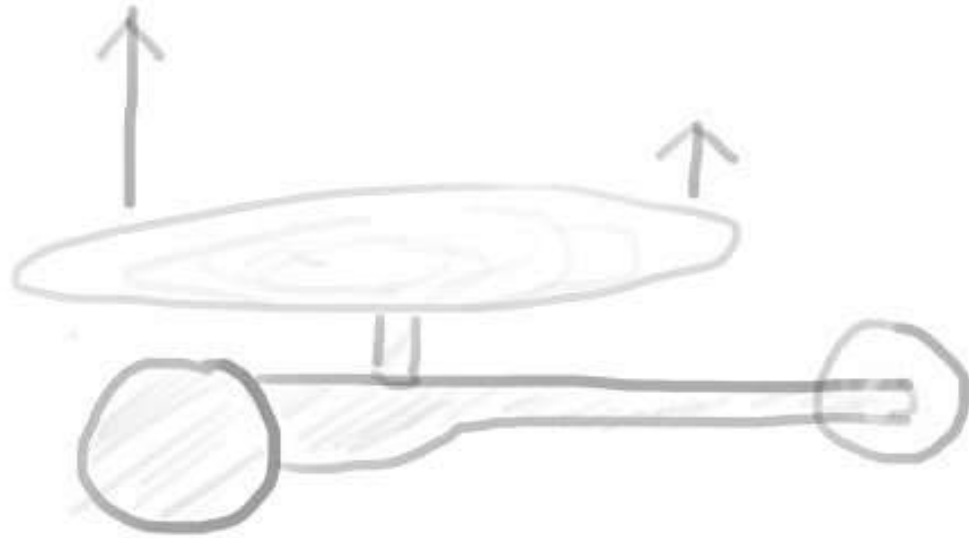
메인로터 회전방향

토크(동체 회전방향)



출처: <https://kdiablog.tistory.com/145>

양력의 차이



달나라의 장난 / 김수영 (1953)

팬이가 돈다

어린아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팬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웁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팬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 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
하면서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팬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팬이가 돈다
팬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 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팬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팬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팬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팬이가 돈다
팬이가 돈다



세차 운동 (歲差運動, Precession)

1. [물리] 물체의 회전축이 회전을 하는 운동. 기울어진 팽이의 회전축이 만드는 원뿔형의 운동.

팬이 회전 운동의 본질은
서는 것이 아니라 뜨는 것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회전은 일종의 장난이며
이 장난을 통해서만 뜰 수 있다.
반면 전전긍긍하거나
노력하는 일이 회전하는 일은 아니다.
회전은 현기증의 놀이다.

김수영은 직선운동의 속도를 찬양하지 않는다.
회전을 선호한다.
아니 회전을 통한 정지에 이르고자 한다.

사물운동의 형이상학

시를 쓰는 도중에도 나는 소음을 듣는다. 한 1초나 2초가량 안 들리는 순간이 있을까. 있다고 하기도 없다고 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말하면 <문학>이 된다. 그러나 내 시 안에 요설이 있다면 <문학>이 있는 것이 된다. 요설은 소음에 대한 변명이고, 요설에 대한 변명이 <문학>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작 노트 7」 (1966) 중)



Korea, the First Jet War

It was a long, hard fight for both the communist and United Nations jet pilots who battled for the right to rule MiG alley.





흡입
연소기
입축배기



팬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달나라의 장난 중

그래도 제트기나 카아고보다는 늦게 나왔다
그렇지만 린드버어그가 헬리콥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리콥터 중

한편, 마리네티의 경우



A Race car is more beautiful than the Victory of
Samotracia

(Filippo Tommaso Marinetti)

우리는 세계의 찬란함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즉 속도의 아름다움을 더했다고 선언한다. 차체의 폭발적인 호흡에 비유되는 사포와 같은 커다란 파이프가 장식되어 있는 경주용 자동차-포탄을 타고 가는 것처럼 소리내는 자동차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Nike von Samothrake)보다 더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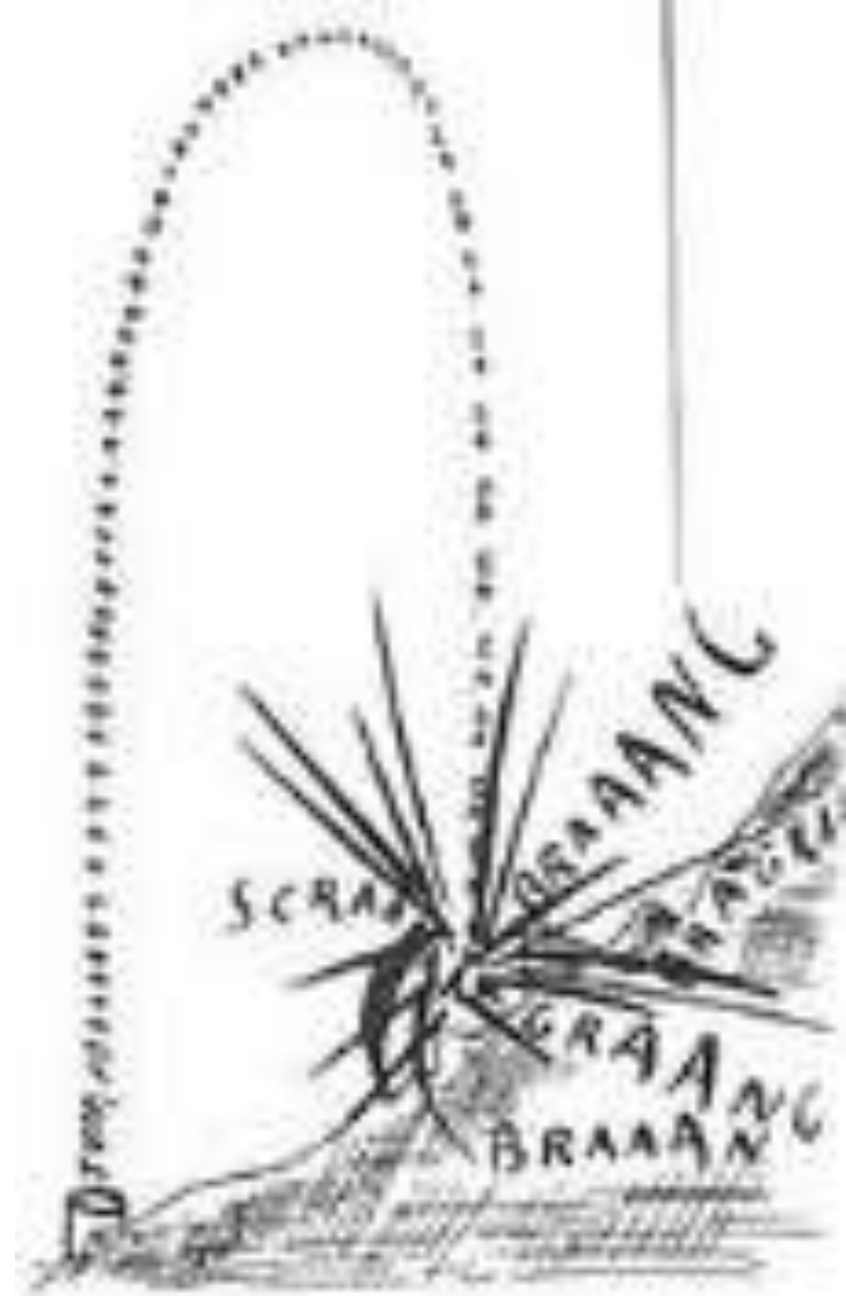
자기 꼬리를 물려는 개의 장난처럼 내가 나의 차를 빙빙 돌릴 때 나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며, 둘 다 공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적 주장을 해대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멍청한 난국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제기랄! 아야! ...나는 순간 차를 정지시켰는데, 그만 차가 뒤집혀서 도랑으로 처박혔다. 속이 메스꺼웠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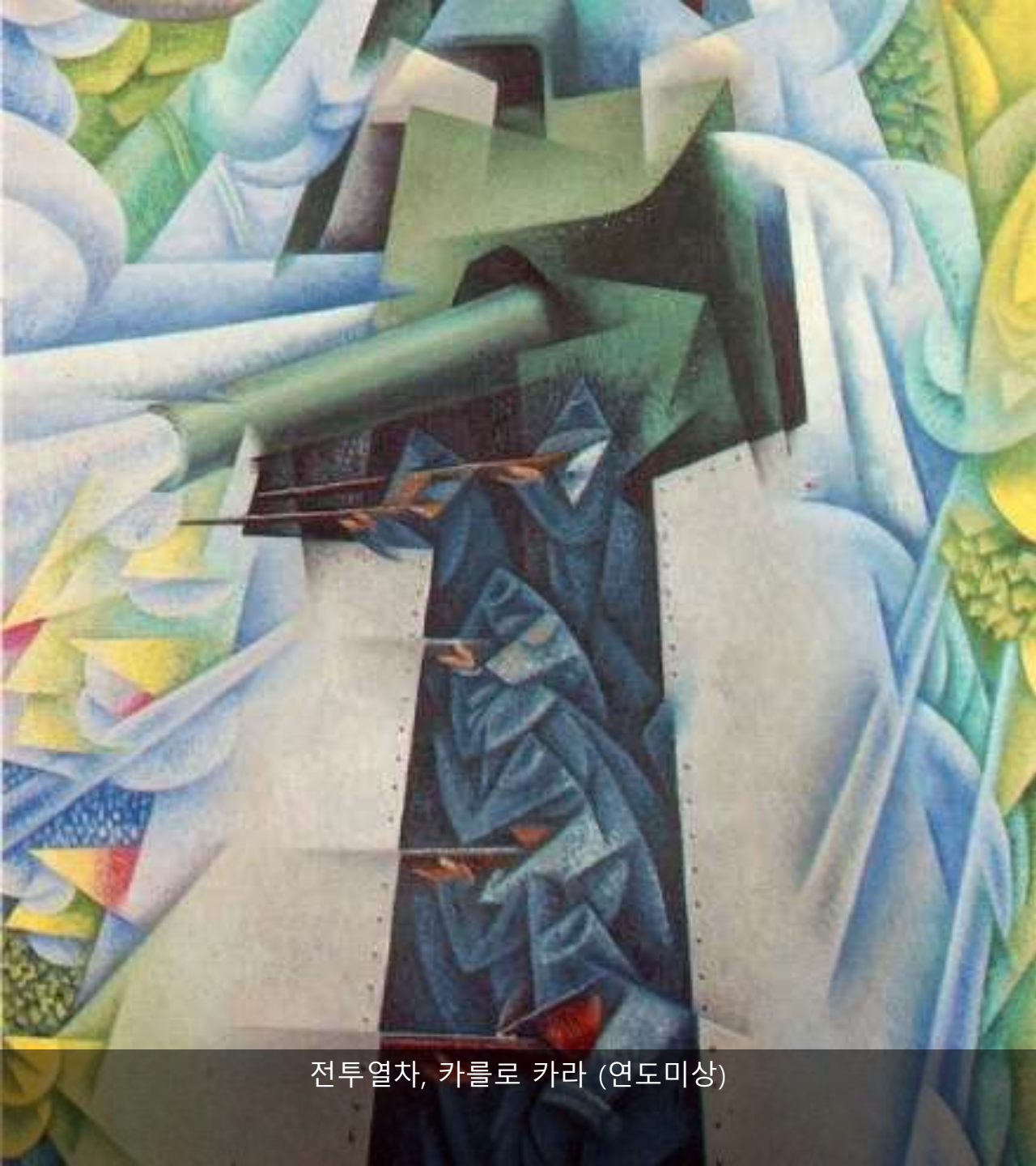
그들은, 나의 자동차, 나의 아름다운 상어가 죽어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애무를 가하자 금방 되살아났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서, 힘찬 지느러미를 흔들며 달려가는 것이었다!

<미래주의의 기초와 미래주의 선언> 중([포에지아], 밀라노, 1909)





A Futurist Poem by Marinetti



전투열차, 카를로 카라 (연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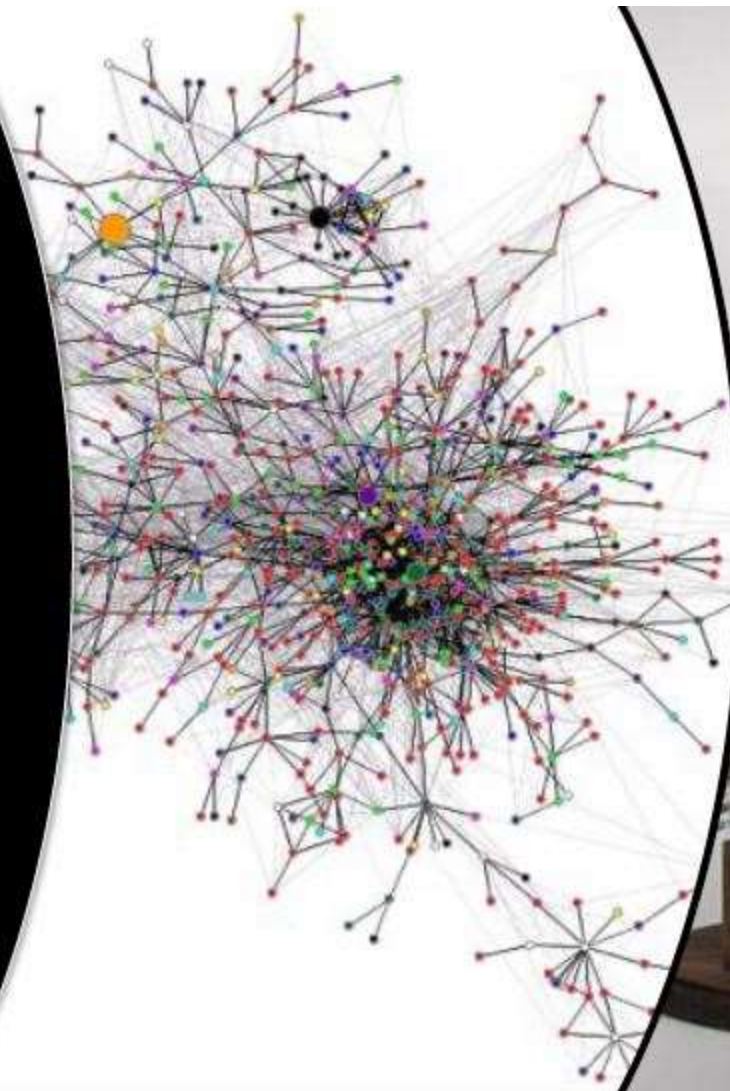
자동차의 역동성, 루이지 루솔로 (1912-13)

더 넓은 전망이 필요없는 이 무제한의 시간 우에서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
양상한 육체의 투명한 골격과 세포와 신경과 안구까지
모조리 **노출 낙하**시켜가면서
안개처럼 가벼웁게 날아가는 과감한 너의 의사 속에는
남을 보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보이는
금지와 선의가 있다
**너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과 함께
손을 잡고 초동물세계 속에서 영위하던
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
너는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규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에 네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에
스스로 겸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는 것이다



기계-사물은 우리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것들의 진화에 인간은
마치 벌이나 나비처럼 매개로서 작동
해 왔는 지도 모른다.

대규모
기술시스템이
원시적인 생물과
비슷하게 행동하며
발전한다.





헬멧도
다양종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기술진화는 단순한 개인 인간의 의도를 벗어난다.

중세갑옷 전문가 베시포드 딘의 계통표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이것은 사물로부터 온 신체다.